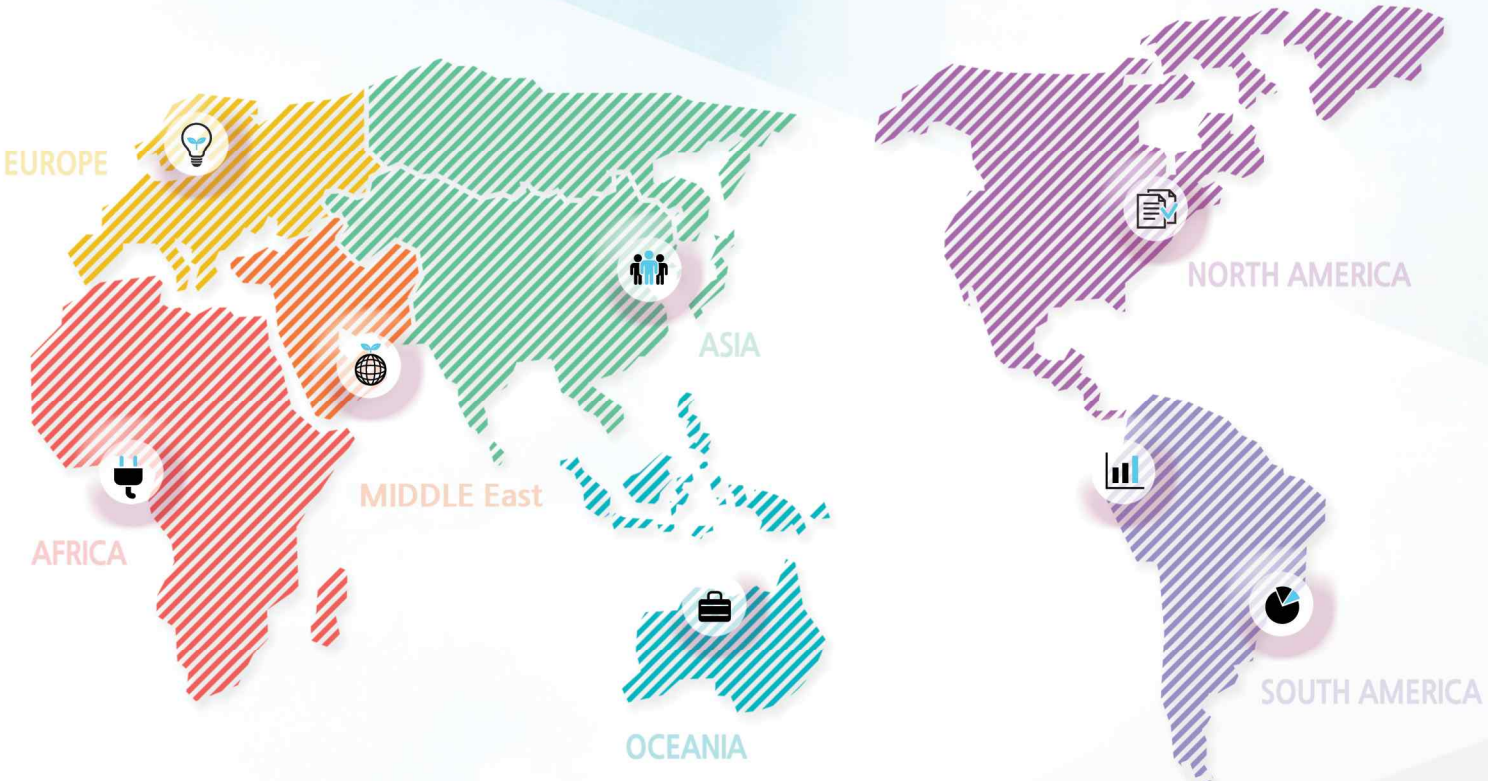
Global Market Report 15-002

2015.01.14



Global Market Report

경쟁국 對유럽 M&A 현황 및 시사점

- 2편 -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

목 차

요 약 1

Ⅳ. 프랑스 2

2 1. 국경간 M&A 동향
4 2. 한·중·일 진출동향
22 3. 우리기업 진출방안

Ⅴ. 네덜란드 24

24 1. 국경간 M&A 동향
30 2. 한·중·일 진출동향
41 3. 우리기업 진출방안

Ⅵ. 이탈리아 43

43 1. 국경간 M&A 동향
47 2. 한·중·일 진출동향
59 3. 우리기업 진출방안

요 약

2014년 상반기 유럽 M&A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를 나타내며 글로벌 기업의 격전지로 재부상했다. 특히 의료·제약, 통신 부문에서 10억 유로를 상회하는 '메가딜'이 속속 등장하면서 거래를 주도하고 있다.

국가별로 M&A 유망분야를 살펴보면, 영국은 향후 대규모 교통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관련기업 인수 시 프로젝트 참여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독일의 경우 자동차부품 기업 M&A를 통해 글로벌 브랜드로의 납품 가능성도 타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IT 서비스와 더불어 와이너리(Winery)[1]가 주요 M&A 분야로 부상해 눈길을 끈다. 그밖에 네덜란드 첨단 기술기업 혹은 이탈리아 제약업체를 인수함으로써 까다로운 지재권 및 인증 제도를 우회 돌파하는 방안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최근 중국과 일본이 경쟁적으로 유럽기업 M&A에 열을 올리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등에 업고 에너지, 물류 등 기간산업 위주로 유럽기업 인수에 나섰다. 일본의 경우 최근 대외 M&A를 고령화와 내수 부진의 돌파구로 삼고 있다. 이처럼 경쟁국들이 유럽에서 활발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우리나라는 거래 규모 뿐 아니라 분야의 다양성에서도 절대적 열세를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3년 동국실업의 독일기업 인수 성공사례 이후 우리 중소·중견기업 사이에서 유럽 M&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또한 인수 과정에서 KOTRA 글로벌 M&A 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했다는 점도 우리기업들이 참고할 만하다. 최근에는 국민연금과 코파펀드[2]를 조성해 M&A 자금을 확보하는 중견기업이 속속 나타나 눈길을 끈다.

향후 유럽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 알짜기업을 저가에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기술력과 브랜드, 현지 유통망을 일거에 획득 가능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변 경쟁국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이제는 유럽 M&A 시장에 승부수를 던져야 할 시점이다.

1) 와인 양조장
2) 코파펀드(Corporate Partnership Fund) : 해외 M&A를 위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공동 투자하는 사모펀드

Ⅳ 프랑스

1. 국경간 M&A 동향

□ 거래 현황

○ 프랑스 국경간 M&A 시장은 2008년까지는 평균 1,500억 유로 수준을 유지했으나 최근 감소 추세

-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882억 유로(-50%), 2010년 694억 유로(-21%)로 감소했으나, 2011년 1,532억 유로(121%)로 위기 전 수준을 회복
- 이후 2012년 713억 유로로 53%, 2013년에는 608억 유로로 15% 감소함.

<프랑스 M&A 실적 추이>

(단위: 건, 백만 유로)

구분	IN-IN		IN-OUT		OUT-IN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9년	450	34,135	135	41,365	89	12,716	674	88,216
2010년	512	23,712	142	16,834	125	28,867	779	69,413
2011년	379	27,076	171	80,912	110	45,291	660	153,279
2012년	417	9,116	158	32,332	131	29,882	706	71,330
2013년	305	9,515	112	15,915	121	35,429	538	60,859
2014년 (상반기)	N/A	11,700	N/A	11,300	N/A	61,200	N/A	84,200

자료원: Fusions & Acquisitions(프랑스 M&A 전문지), 증시 웹사이트(www.abcbourse.com)

○ 2013년 주요 M&A 분야는 서비스, 금융, 유통, 의류, 기계 등

- 서비스는 2013년 M&A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분야로 186건, 233억 6,000만 유로, 전년에는 229건, 302억 유로 규모를 기록
- 은행·보험 부문은 115억 5,000만 유로(37건)로 전년 22억 유로(22건) 대비 증가
- 유통은 62억 3,000만 유로(32건)로 전년 96억 8,000만 유로(41건) 대비 감소
- 섬유·의류는 15건, 33억 8,000만 유로로 2012년 24건, 6억 8,400만 유로 대비 건수는 감소했으나 금액은 증가

<프랑스 주요 M&A 분야(2012～2013년)>

(단위: 건, 백만 유로)

순위 (건수기준)	연도	2013년		2012년	
	분야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	서비스·유틸리티	186	23,360	229	30,200
2	은행·보험	37	11,550	22	2,200
3	유통	32	6,230	41	9,680
4	섬유·의류	15	3,380	24	684
5	공작기계·전기장비	46	3,090	70	41,600

자료원: Fusions & Acquisitions(프랑스 M&A 전문지)

○ 메가딜 증가로 OUT-IN M&A 금액은 전년대비 증가

- 2013년 OUT-IN 규모는 121건, 354억 3,000만 유로로 2012년 대비 건수는 7.6% 감소, 금액은 19% 증가
- 5억 유로 이상 대규모 딜은 미디어그룹 VINCI의 Activision Blizzard 지분 매각(62억 유로) 등 23건에 달함.
- 주요 투자자 국적은 미국, 카타르, 영국, 중국,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등

□ 최근 추세

○ 유럽 재정위기 이후 저가 매물 대거 발생, 최근 경기회복 움직임에 따른 M&A 시장 활성화

- 유럽중앙은행(ECB)의 금리인하 및 양적완화 정책, 위기극복을 위한 기업들의 구조개혁에 따른 투자기회 확대가 주요 특징

○ 2014년 상반기 OUT-IN 거래 규모는 612억 유로로 전년동기 대비 100.5% 증가를 기록

- 상반기 전체 M&A 시장규모도 842억 유로로 이미 2013년 연간 M&A 시장규모를 초과
- Lafarge(프랑스/시멘트)와 Holcim(스위스/시멘트)간 기업합병(35억 유로) 등 스위스 기업의 對프랑스 M&A가 291억 유로로 47.5% 차지

2. 한·중·일 진출동향

(1) 중국

가. 對프랑스 M&A 동향

□ 거래 규모

○ 중국의 對프랑스 M&A 규모는 공식 집계, 발표되고 있지 않아 전체 금액을 파악하기는 어려움.

○ 다만, Thomson Reuters에 따르면 중국의 對프랑스 M&A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중·일 3개국 중 최대 규모를 나타낸 것으로 추정됨.

- 공개된 금액 기준으로 2011년 33억 4,100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14년에도 5억 4,500만 달러 규모로 프랑스기업 인수를 꾸준히 지속함.

<중국의 對프랑스 M&A 실적 추이>

(단위: 건, 백만 달러)

구분	프랑스기업 대상 M&A	
	건수	금액
2008년	1	-
2009년	5	1,015
2010년	1	31
2011년	7	3,341
2012년	6	491
2013년	8	746
2014.1-11월	7	545

자료원: Thomson Reuters(대외 공개건 기준)

□ 주요 분야

○ 최근 중국기업들의 M&A 분야는 다양함.

- 식품을 중심으로 기계, 통신, 화학, 제조업 등 분야에서 M&A 추진
- 특히 현지 내수시장 공략보다는 자국을 포함한 신흥국, 유럽지역 수출 발판 마련을 위한 M&A가 대다수

○ 선진기술, 경영 노하우, 브랜드, 유통거점 확보 및 신산업 진출 등 다양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소규모 M&A가 대부분

□ 최근 특이사항

○ 중국기업들은 과거 1980년대 일본과 유사하게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지분매입, 파트너십 구축 등 다각도로 M&A를 추진하고 있음.

○ 식품 및 음료 분야 인수합병이 활발함.
- 2008년 분유파동 이후 중국은 내수시장 공급을 위한 생산업체 인수를 비롯, 자국 내 수요가 급증하는 포도주 공급을 위한 현지 와이너리(Winery) 인수 등

○ 프랑스기업들은 중국의 풍부한 자금 유입을 통해 파산 및 실업을 방지하는 한편, 자사 지분을 임의로 매각 불가능한 계약 조건을 우선시하면서 상호 우호적 M&A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국기업들은 현지 경영노하우 부족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현지 전문 경영인을 선임, 프랑스 정부 및 지자체, 피인수기업을 안심시키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파악됨.

○ 최근 파악된 현지 대규모 투자계획은 다음과 같음.
- 르아브르(Le Havre) 국제항만청의 대규모 토지 매입을 통한 물류기지 건설
- 독일 국경 인근 및 중부지역 지자체로부터 비즈니스 센터 건설용 토지를 무상 혹은 낮은 비용으로 매입, 조성하는 프로젝트 추진 중
- 매년 지속 증가하는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6성급 호텔 건설, 유람선 운행 사업(Club Med)에도 적극 투자

□ 현지 여론동향 분석

○ 외국기업의 자국기업 인수합병 관련, 프랑스 정부, 업계, 언론 등에서 중국기업의 경영권 장악, 투기성 M&A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제기

- 이에 대해 중국기업들은 현지에서 장기적인 생산 활동을 통해 고용을 보장하는 한편, 멕시코, 남아공, 브라질 등 신흥국 혹은 여타 유럽시장 수출에 주력하기 위한 M&A를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음.
- 그 결과 중국기업들의 현지진출에 대한 인식이 점차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인근 유럽국가와 중국기업 유치를 두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양상임.
- 또한 일부 언론에서 미국 헤지펀드보다 중국기업의 투자가 프랑스 산업 및 경제에 유익하며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음.

<프랑스 M&A 시장진출 주요 중국기업>

(단위: 백만 달러)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업종	M&A 금액	M&A 년도
CIC	GDF Suez-Exploration Business	전력	3,259	2011년
PetroChina Co Ltd	INEOS Group Ltd-European	화학	1,015	2009년
Dongfeng Motor Corporation	PSA SA	자동차	800	2014년
CIC	Eutelsat Communications SA	우주·위성	484	2012년
Shanghai Fosun High Tech(Grp)	Club Mediterranee SA	호텔	31	2010년
Inner Mongolia Free Han Pharm	Echosens SA	건강관리 장비	28	2011년
MA Steel Intl Trade&Econ Corp	Valdunes SAS	기계	18	2014년
COFCO Ltd	Societe Du Chateau De Viaud	식품	14	2011년
Yto International Ltd	Yto France SAS	기계	11	2011년
Jinshan Zhang	Les Trois Collines SCA	식품	5.4	2012년
American Lorain Corp	Athena Group SAS	식품	2	2014년

자료원: Thomson Reuters, 주요 일간지(Le Monde, Le Figaro, Les Echos)

나. 중국기업의 프랑스기업 M&A 사례

1) 중국기업 성공사례

[사례1] : Dongfeng Motor Corporation의 PSA Peugeot Citroën 인수

□ M&A 기본정보

취급품목	자동차	M&A 년도	2014년
M&A 금액	8억 유로	목적	선진기술 확보, 내수시장 진출
거래의사	우호적 M&A	법적형식	주식취득(14%)
결합형태	수평적 M&A	결제수단	현금
인수기업	Dongfeng Motor Corporation	설립년도	1969년
		소재국가	중국
		매출액(2012년)	465억 유로
		업종	완성차 제조
피인수기업	PSA Peugeot Citroën	설립년도	1810년
		매출액(2013년)	277억 유로
		업종	완성차 제조

□ 상세 내역

○ 기업 개요

- (인수기업) DFM은 중국 2대 자동차그룹으로 광저우, 우한, 스옌 등 중국 각지에 생산기지를 운영 중인 국영기업
- 2012년 기준 고용인원 16만 명, 판매량 300만대, 매출 465억 유로를 기록함. Nissan, Honda, 기아차 등과 파트너십 체결
- (피인수기업) PSA Peugeot Citroën은 프랑스 최대 완성차그룹으로 1810년 Peugeot 가문에서 설립, 200여 년간 대주주 지위를 유지
- 재정위기에 따라 유럽시장 판매가 급감하면서 매출 감소, 경쟁력 저하 등에 봉착, 최근 6년 간 82억 유로 적자를 기록하며 정부의 금융지원, 공장폐쇄 및 구조조정 조치에도 자금난을 해결하지 못함.

□ M&A 목적

○ 선진기술 확보, 중국 내수 및 신흥국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경영 노하우 확보 등이 주요 목적

□ 특이사항

○ 프랑스 정부, Peugeot家, DFM의 3각 경영체제를 구축했다는 점이 특징
- 정부는 해외기업의 지분참여로 인한 경영권 이전 및 고용 안정성 위협을 우려, 공동 경영체제 및 거부권 소유 등을 조건으로 제시하여 관철함.
- DFM은 PSA와 같은 거대 그룹을 경영할 노하우 부족으로 Peugeot 일가 및 프랑스 정부와 동등한 14% 지분을 보유하는 공동 경영체제를 수락함.
- PSA 경영진은 당초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으나 내부 동의를 얻지 못해 결국 이사회 의장직을 상실하고 공동 대주주로 전락함.

□ 시사점

○ 성공요인
- DFM은 독자 경영권 획득을 양보하면서 PSA 그룹의 자국 내 투자확대를 통한 내수시장 및 해외시장 공동 진출 등 우호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프랑스 정부의 우려를 불식
- 민간기업이 아닌 중국 국영기업이 프랑스 최대 자동차 기업의 증자 계획에 참여함으로써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로 도약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이 단독 경영체제를 선호하는 우리기업과의 차이점으로 나타남.
- 글로벌 시장에서 대형트럭 제조사로만 알려져 있던 DFM은 동 지분참여를 통해 PSA그룹의 브랜드와 변속기 및 엔진 기술을 흡수, 향후 승용차 분야에서도 고품질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계기 확보

[사례2] : Spark Machine Tool의 Somab 인수

□ M&A 기본정보

취급품목	공작기계	M&A 년도	2009년
M&A 금액	200만 유로	목적	내수시장 진출
거래의사	우호적 M&A	법적형식	주식취득(80%)
결합형태	복합적 M&A	결제수단	현금
인수기업	Spark Machine Tool co., Ltd	설립년도	2002년
		소재국가	중국
		매출액(2008년)	9,400만 유로
		업종	제조
피인수기업	Somab	설립년도	1985년
		매출액(2013년)	1,282만 유로
		업종	제조

□ 상세 내역

○ 기업 개요

- (인수기업) Spark Machine Tool은 공작기계(선반) 제조업체로 2004년부터 Somab과 합작회사 설립을 목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 유럽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2009년 Somab 지분 80% 취득
- (피인수기업) Somab은 1985년 설립된 중소규모 공장기계 제조업체로 고가의 첨단기술 제품을 주로 생산, 연구개발 자금 조달을 위해 Spark에 지분을 매각, 우호적 관계를 지속함.

○ M&A 목적

- Spark Machine Tool은 Somab의 선진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Somab은 신규 자본을 도입해 생산시설 현대화 및 연구개발 투자, 아시아 유통거점 확보를 통한 수출 확대 추진

○ 추진 과정

- 양사는 2004년부터 우호적 복합 M&A를 계획, 2006년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후 2009년 Somab은 Spark Machine Tool에 지분 80%를 130만 유로에 매각함. 이후 최고 경영권은 그대로 유지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통합된 상태

□ 시사점

○ 성공요인

- 선진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국기업과 연구개발 자금 및 해외 유통거점 확보를 원하는 프랑스기업 간 상호보완적인 M&A로 양사가 상생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장기간의 우호적인 관계 및 신뢰 형성이 기술이전 및 지분참여 등 M&A로 확대 발전하는 기반이 됨.
- Somab의 높은 기술력과 Spark Machine Tool의 저가제품이 시너지를 나타내며 양사간 긴밀한 기술제휴 및 우호적 M&A 성공에 기여함.

2) 중국기업 실패사례

[사례2] : Y社의 M社 인수

□ 상세 내역

○ M&A 목적

- Y社는 기술적으로 10여년 뒤쳐진 자사 농기계의 품질 제고와 함께 브랜드 및 유통거점 확보를 목적으로 당시 법정관리 중이던 M社를 인수

○ 추진 과정

- M社의 법정관리를 담당한 현지 지방법원은 현지 종업원 100% 인수 및 향후 5년간 800만 유로 투자 등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Y社에 M社를 매각하기로 결정, 승인함.
- 인수 후 2014년까지 100만 유로를 투자해 400명을 채용하고 선진기술 습득을 위해 본사 직원을 프랑스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게 하면서 이탈리아, 중국으로 수출 추진

□ 시사점

○ 실패요인

- 프랑스 공장 인수 후 수직적이고 불투명한 경영방식으로 현지 직원들과의 의견교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시장변화에 대처하지 못함.
- 또한 자사 제품보다 10여년 앞선 프랑스 공장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인수 이후 R&D 노력을 등한시한 것도 판매 감소의 요인

(2) 일본

가. 對프랑스 M&A 동향

□ 거래 규모

○ 일본의 對프랑스 M&A 규모 역시 공식 집계되지 않으나, Thomson Reuters에 따르면 2014년 거래 규모는 약 1,900만 달러로 추정됨.

- 2012년에 프랑스기업 M&A 금액은 33억 5,6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이후 연간 1억 달러 미만의 규모를 나타내고 있음.

* 2012년도 Toyota 통상의 CFAO 인수건(31억 4,000만 달러)을 제외하면 예년과 비슷한 규모

<일본의 對프랑스 M&A 실적 추이>

(단위: 건, 백만 달러)

구분	프랑스기업 대상 M&A	
	건수	금액
2008년	10	1,204
2009년	2	-
2010년	4	11
2011년	9	151
2012년	13	3,356
2013년	7	42
2014.1-11월	6	19

자료원: Thomson Reuters(대외 공개건 기준)

□ 주요 분야

○ M&A 분야는 기계, 자동차부품, 식품, 교통 인프라, 제약, 전자 등 다양

- Fujitsu, Konica Minolta, Aderans 등 이미 현지에 진출한 기업 위주로 프랑스 기업을 M&A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끔.

□ 최근 특이사항

○ 최근에는 엔저로 경쟁력이 향상되면서 수익성을 회복한 일본 대기업들이 M&A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추세임.

○ 파리 및 수도권(일드프랑스)에 투자를 집중한 중국과는 달리 일본 기업들은 리옹 등 지방 대상 투자도 전체의 20%에 달한다는 점이 특징

<프랑스 M&A 시장진출 주요 일본기업>

(단위: 백만 달러)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업종	M&A 금액	M&A 년도
Toyota Tsusho Corp	CFAO SA	자동차·부품	3,140.28	2012년
Dentsu Inc	Aegis Group PLC	광고, 마케팅	651.16	2012년
NTT communication Corp	Arkadin international SAS	통신 서비스	407	2013년
U-Shin Ltd	Valeo SA-Acess Mechanisms	자동차/부품	207.37	2012년
Santen Pharmaceutical Co Ltd	Novagali Pharma SA	제약	136.76	2011년
Fujitsu Ltd	RMP	인터넷, 소프트웨어 서비스	20.83	2013년
Amane Nakashima	Everget Capital SAS	식품	20.82	2013년
Konica Minolta Inc	MGI France SA	기계	18.58	2014년
Nisshin Seifun Group Inc	Eurogerm SA	식품	11.03	2010년
Aderans Co Ltd	Le Nouvel Espace Beaute SA	가정용품	7.98	2012년

자료원: Thomson Reuters

나. 일본기업의 프랑스기업 M&A 사례

1) 일본기업 성공사례

[사례1] : Softbank Corp의 Aldebaran Robotics 인수

□ M&A 기본정보

취급품목	휴머노이드 로봇[3]	M&A 년도	2012년
M&A 금액	1억 달러	목적	신산업 진출, 선진기술 확보
거래의사	우호적 M&A	법적형식	주식취득
결합형태	수직적 M&A	결제수단	현금
인수기업	Softbank Corp	설립년도	1981년
		소재국가	일본
		매출액(2013년)	647억 7,500만 달러
		업종	소프트웨어 도매, 출판, 전자상거래, 금융, 통신
피인수기업	Aldebaran Robotics	설립년도	2005년
		매출액(2012년)	1,880만 유로
		업종	로봇

□ 상세 내역

○ 기업 개요

- (인수기업) Softbank Corp는 1981년에 휴대전화 서비스 기업으로 설립 후 IT 전 분야로 영업을 확대하면서 일본을 대표하는 IT 기업으로 성장
- (피인수기업) Aldebaran Robotics는 2005년에 설립된 벤처기업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여 세계 70여개 국가에 판매하는 등 선구적인 입지를 구축했으나 자금력 부족을 겪음(2012년 부채 2,000만 유로).

3) 인간의 신체와 유사한 모습을 갖춘 로봇(Humanoid Robot)

○ Softbank Corp는 신산업 진출, 선진기술 및 브랜드 확보가 주목적이었으며 Aldebaran Robotics로서는 연구개발 자금 조달을 통한 신제품 개발과 대량 생산을 추진함.

○ Softbank Corp는 Aldebaran Robotics의 지분 78% 매입(자회사화) 조건으로 1억 달러를 지불하고 R&D 능력 향상을 위해 5,000만 달러 추가투자에 합의
- 피인수기업 Aldebaran Robotics는 기존 연구개발 인력 및 경영권을 유지

□ 시사점

○ 성공요인 등
- 동 M&A의 성공요인은 상호보완적인 기업 성격과 함께 상생가능한 조건을 양사가 수락한 데 있음.
- 피인수기업이 보유한 선진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한 Softbank Corp는 모회사로서 지배구조를 유지하면서 신산업에 진출, 그룹이미지 부각은 물론 장기적으로 사업성과 개선 기회를 포착함.
- Aldebaran Robotics도 연구개발 자금난 해소, 경영권 유지 등 대부분의 요구조건을 관철함.

(3) 한국

가. 對프랑스 M&A 동향

□ 거래 규모

○ Thomson Reuters에 따르면 한국의 對프랑스 M&A 규모는 주요 경쟁국 대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공개금액 기준 2013년에 3건, 2억 5,500만 달러를 기록했으나 2014년에는 현재까지 1건(금액 비공개)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됨.
- 또한 2008~2009년, 2012년에는 對프랑스 M&A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되어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저조한 실적을 보임.

<한국의 對프랑스 M&A 실적 추이>

(단위: 건, 백만 달러)

구분	프랑스기업 대상 M&A	
	건수	금액
2008년	-	-
2009년	-	-
2010년	4	279
2011년	4	7
2012년	-	-
2013년	3	255
2014.1-11월	1	-

자료원: Thomson Reuters(대외 공개건 기준)

□ 주요 분야

○ 주요 M&A 대상 분야는 부동산, 소프트웨어, 의류 유통, 소비재 등

□ 최근 특이사항

○ CSLI의 SYSTRAN 인수 사례와 같이 최근에는 자동번역 소프트웨어 등 기술 분야 M&A도 발생하는 추세

○ 한국기업들은 주로 파리 인근 수도권에 진출하는 비중이 높은 편

<프랑스 M&A 시장진출 주요 한국기업>

(단위: 백만 달러)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업종	M&A 금액	M&A 년도
국민연금공단	O'Parinor Shopping Center	부동산	279.50	2010년
Investor Group	Docks Lyonnais SA-building	부동산	229.27	2013년
CSLI Co Ltd	SYSTRAN SA	소프트웨어	21.75	2013년
EXR Korea Co Ltd	Jean-Charles de Castelbajac SA	의류 유통	4.17	2011년
TJ Media Co Ltd	DREAM SAS	반도체	2.57	2011년
현대자동차	Emil Frey-Hyundai Assets	자동차	-	2011년
아모레퍼시픽	Annick Goutal SAS	소비재	-	2011년
남영비비안	Barbara Lingerie SAS	의류 유통	-	2010년

자료원: Thomson Reuters

나. 한국기업의 프랑스기업 M&A 사례

1) 한국기업 성공사례

[사례1] : 아모레퍼시픽의 Annick Goutal 인수

□ M&A 기본정보

취급품목	향수	M&A 년도	2011년
M&A 금액	2,500만 유로(약 300억 원)	목적	인지도 제고 및 해외사업역량 강화
거래의사	우호적 M&A	법적형식	주식취득
결합형태	수직적 M&A	결제수단	현금
인수기업	아모레퍼시픽	설립년도	1945년
		소재국가	한국
		매출액(2013년)	38억 달러(38,954억 원)
		업종	제조
피인수기업	Annick Goutal SAS	설립년도	1981년
		매출액(2012년)	1,300만 유로
		업종	제조

□ 상세 내역

○ 1990년 프랑스에 투자 진출한 아모레퍼시픽은 2011년 명품 향수 브랜드 Annick Goutal을 인수함.

- 아모레퍼시픽은 해외 지주회사 '아모레퍼시픽 글로벌 오퍼레이션(AGO)'을 통해 미국계 사모펀드 Starwood Capital이 보유한 Annick Goutal 지분 100% 인수 계약 체결

○ Annick Goutal은 1981년 설립된 향수 제조업체로 동사 브랜드는 Bergdorf Goodman(미국), Harrod's(영국) 등 고급 백화점을 비롯, 전 세계 20개국 1,300개 매장에서 판매되는 명품으로 자리매김함.

○ 아모레퍼시픽의 해외 브랜드 인수 목적은 글로벌 화장품 기업으로서의 인지도 제고 및 해외사업 역량 강화

- 동사는 프랑스에 소재한 자체 향수 브랜드 'Lolita Lempicka' 공장에서 Annick Goutal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공장가동률을 향상하고 프랑스 제품의 인지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전 세계 시장으로 확장할 계획

□ 시사점

○ 아모레퍼시픽은 Annick Goutal 인수로 고급 브랜드로의 입지를 제고하고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를 활용해 향수 사업부문에서 시장 확장 계기를 마련함.

- Annick Goutal은 프랑스는 물론 아시아인의 취향에도 맞는 명품 브랜드로 중국,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향수 사업을 확대하는 데에도 기여함.

[사례2] : CSLI International의 SYSTRAN 인수

□ M&A 기본정보

취급품목	자동번역 솔루션	M&A 년도	2013년
M&A 금액	2,175만 달러	목적	브랜드 및 선진기술 확보, 신시장 확장, 유통거점 확보
거래의사	우호적 M&A	법적형식	주식취득
결합형태	수평적 M&A	결제수단	현금
인수기업	CSLI International	설립년도	1992년
		소재국가	한국
		매출액(2013년)	N/A
		업종	자동번역 솔루션
피인수기업	SYSTRAN	설립년도	1968년
		매출액(2013년)	8만 유로
		업종	자동번역 솔루션

□ 상세 내역

○ 기업 개요

- (인수기업) CSLI International은 1992년 설립된 한국 1위 자동번역 솔루션 업체로 4개 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서비스 제공
- (피인수기업) SYSTRAN은 1968년 설립된 세계 최대의 자동번역 솔루션 개발 기업으로 89개국 언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함. 미 국방부, 유럽연합 등 전 세계 기업 및 정부기관에 번역 소프트웨어 공급 중

○ 동 M&A를 통해 CSLI International은 세계 정상급 자동번역 솔루션 기업으로의 도약과 국내외 사업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양사는 2013년 초 유럽 및 아시아권 언어통합 공동기술개발 발표회를 개최, 번역기술 공동개발에 합의함. 상호보완적인 외국어 번역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어 윈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이 성공요인으로 작용

○ CSLI International은 2013년 SYSTRAN 지분 35.79%를 주당 5유로에 매입하는 오퍼 제시, 프랑스 및 미국 금융당국으로부터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양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12월 중순 우호적 M&A를 체결함.

□ 시사점

○ 양사의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여 함께 더 큰 비전을 이루어 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음.

○ 양사가 자동번역 솔루션 공동 개발, 상호보완적 기술 접목에 합의한 결과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S-Translator) 등 유명 제품에 적용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둠.

3. 우리기업 진출방안

□ M&A 유망분야

○ 와이너리(Winery) 분야
- 프랑스에는 청년층의 이농현상으로 상속이 순조롭지 않아 와이너리 M&A가 이뤄지며 OUT-IN M&A 분야로 각광받고 있음.
- 이는 중국 등 신흥국의 포도주 수요 증가로 M&A가 유망 사업분야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브랜드 가치가 높은 프랑스산 포도주는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평가받기 때문

○ IT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서비스 분야
- 2013년 해외기업의 對프랑스 FDI(M&A 포함) 건수 면에서 소프트웨어 및 정보 서비스 분야가 61건으로 최다였으며 금액 기준으로도 공동 6위
- 프랑스의 디지털화 정책 및 초고속 인터넷망 확충에 힘입어 각 분야에서 수요가 지속 증가하며 다수의 벤처기업들이 IT 기술 개선에 매진하고 있어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하기에 유망한 분야로 판단됨.

□ 진출방안 및 유의사항

○ 장기불황과 신용경색으로 프랑스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 저렴한 가격으로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하기 수월한 상태임.
- 또한 정부의 노동법 개혁 및 세제 혁신(근로시간 자율화, 기업부담 사회보장세 경감, 최저임금제 완화 등) 정책 추진으로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될 전망

○ 높은 실업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랑스에서 M&A를 통해 진출할 경우 기술력과 인력을 한꺼번에 인수하는 조건을 제시하여 파산위기에 있는 기업 경영진 및 종업원들의 우호적 반응을 얻는 것이 중요함.

○ 다만, 시장성을 철저히 검증한 후에 M&A를 시행해야 함.
- 기술 가치나 제품 경쟁력을 판별할 수 있는 전문가 조언을 얻는 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가급적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분야에서 M&A 대상 업체를 물색해야 실패를 예방할 수 있음.

○ 또한 프랑스의 수평적 기업문화 및 한국과의 노무제도상 차이점을 사전에 숙지하여 현지직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함.

○ M&A 관련정보는 전문 컨설팅회사 혹은 로펌 및 변호사를 통해서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문기관 디렉토리는 Fusacq 웹사이트[4]에서 얻을 수 있음. 프랑스 로펌에 근무 중인 한국인 변호사 명단은 KOTRA 파리무역관을 통해 입수 가능

4) http://www.fusacq.com

V 네덜란드

1. 국경간 M&A 동향

□ 거래 현황

○ 2009년 이후 국경간 M&A 건수 및 거래금액은 소폭 감소
- 거래건수는 2009년 382건에서 2013년 348건으로 8.9% 감소했으며 거래금액도 2009년 435억 달러에서 2013년 412억 달러로 5.3% 하락

○ 유형별로 OUT-IN의 경우 건수와 금액이 동반 감소한 반면, IN-OUT은 건당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2009년까지 OUT-IN M&A가 거래를 주도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10년 이후 IN-OUT 거래가 급증함.
  * OUT-IN : (2009년) 139건, 323억 4,800만 달러→ (2010년) 155건, 167억 9,100만 달러
  * IN-OUT : (2009년) 239건, 102억 4,300만 달러→ (2010년) 293건, 436억 9,200만 달러

<네덜란드 M&A 실적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IN-IN		OUT-IN		다국적		IN-OUT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9년	377	11,619	139	32,438	4	838	239	10,243	759	55,138
2010년	303	18,556	150	16,777	5	13	293	43,692	751	79,039
2011년	307	2,692	191	12,796	7	2,040	281	18,586	786	36,114
2012년	316	12,626	152	17,079	3	15	226	25,939	697	55,659
2013년	267	18,314	139	16,778	2	-	207	24,425	615	59,517
2014년*	113	280	93	2,794	5	1,868	103	6,054	314	10,996

자료원: Thomson Reuters(2014년 9월 기준)

*주: 다국적 M&A는 IN-IN 중 해외기업이 네덜란드 법인을 경유한 것으로 파악된 거래

○ 특히,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2010년부터 남유럽기업 매물이 증가하면서 이를 겨냥한 네덜란드기업의 IN-OUT M&A 거래가 급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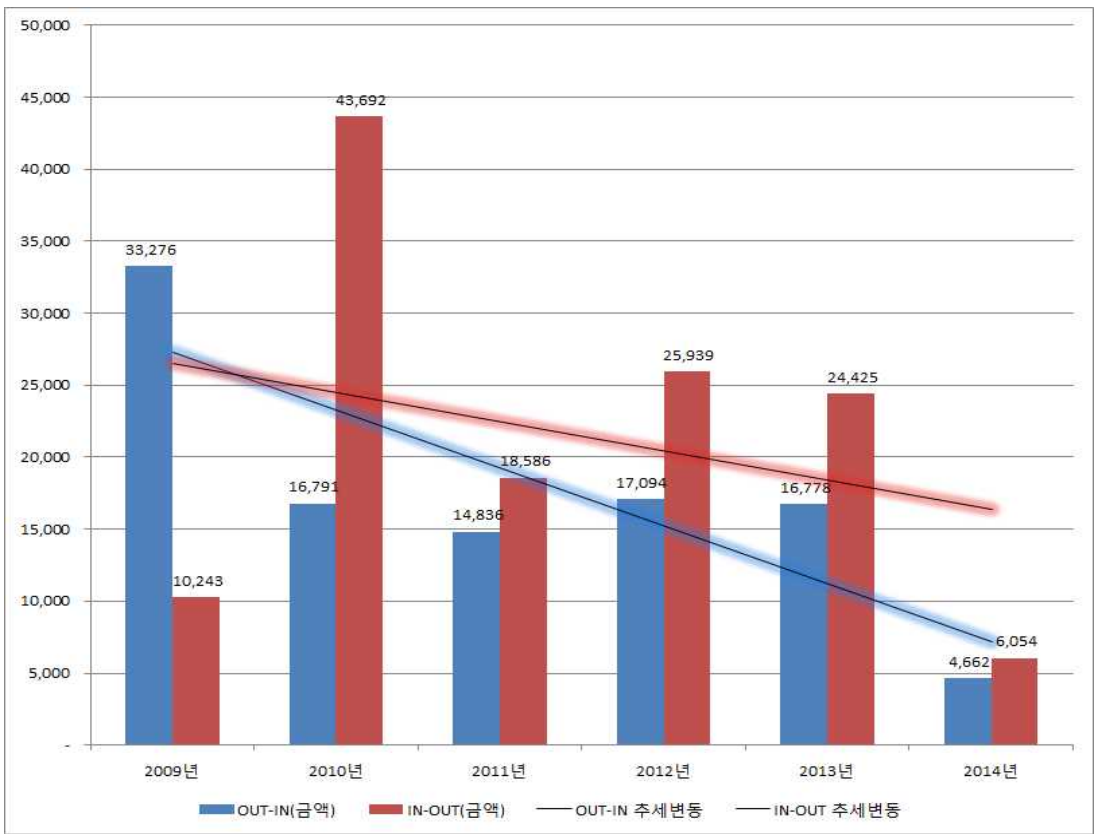
- 2010년 IN-OUT M&A가 전년대비 4배 이상 급증하며 네덜란드기업들이 남유럽 PIIGS 국가[5]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인수합병 했음을 보여줌.
  * IN-OUT 규모 : (2009년) 102억 4,300만 달러 → (2010년) 436억 9,200만 달러
    국경간 M&A 규모 : (2009년) 435억 1,900만 달러 → (2010년) 604억 8,300만 달러

○ 이후 국경간 M&A 전체 규모는 2011년 334억 2,200만 달러로 급감했지만, 2012년 430억 3,300만 달러, 2013년 412억 300만 달러로 소폭 회복

- 최근 유럽 경기가 서서히 회복조짐을 보이면서 2014년에는 남유럽 대상 IN-OUT M&A 거래 규모가 전년대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OUT-IN : (2010년) 155건, 167억 9,100만 달러→ (2013년) 150건, 167억 7,800만 달러
  * IN-OUT : (2010년) 293건, 436억 9,200만 달러→ (2013년) 207건, 244억 2,500만 달러

<연도별 네덜란드 국경간 M&A 금액 추이>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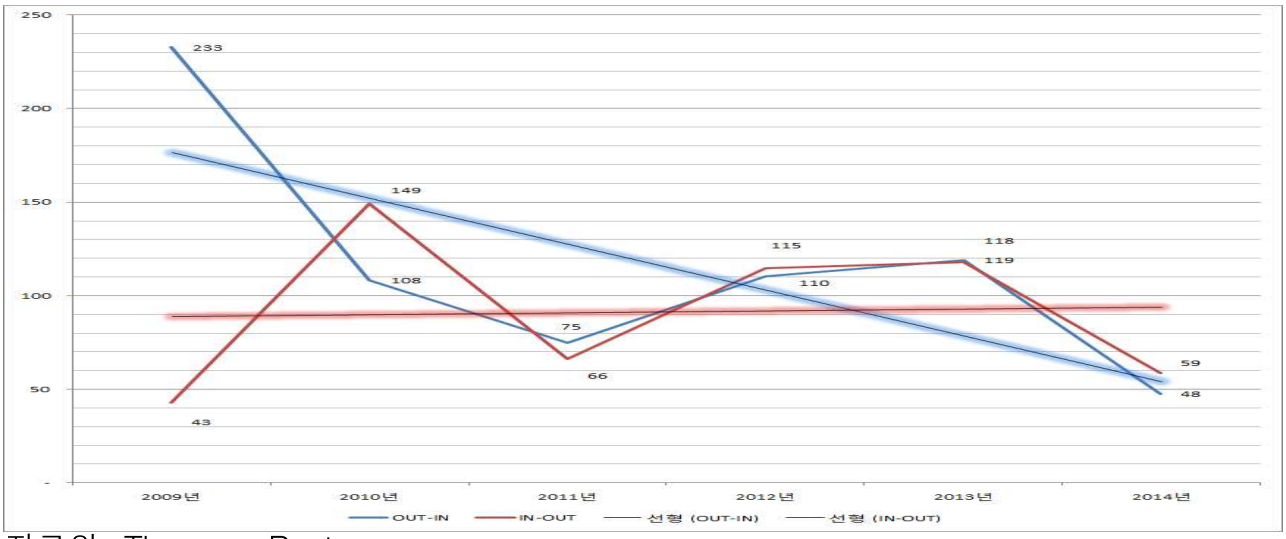
자료원: Thomson Reuters

5) 포르투갈(Portugal), 이탈리아(Italy), 아일랜드(Ireland), 그리스(Greece), 스페인(Spain)

○ 2009~2013년 국경간 M&A 건당 금액을 분석한 결과 IN-OUT 거래 규모는 소폭 상승

- 반면 OUT-IN M&A 거래 규모는 크게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소규모 거래가 중심을 이룸.

<M&A 건별 거래금액 추이>



자료원: Thomson Reuters

○ 국경간 M&A 거래 중 산업별로는 OUT-IN은 에너지, IN-OUT은 기계산업 거래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OUT-IN) 에너지 : 석유·가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및 송배전망 등
- (IN-OUT) 기계 : 산업용 기계 및 플랜트 등

○ 특히 2009년 OUT-IN 거래에서 에너지 산업의 높은 비중은 EU의 전력에너지 개방정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EU는 1996년 역내 단일 전력시장 구축을 목적으로 지침(EU Directive)을 발표함. 이에 따라 네덜란드도 2004년 7월 이후 소비자가 전력 공급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력시장이 전면 개방됨.
- 국가 간 전력 교역을 위해 인근 국가로부터 전력산업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M&A 거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Electrabel(벨기에), Centrica(영국), E.on(독일), Dong(덴마크)이 네덜란드 소규모 에너지 기업 Rendo & Cogas, Oxxio, NRE(상업화 부문), Intergas(상업화 부문)를 각각 인수하면서 시장자유화 움직임을 주도함.

○ 산업별 거래실적을 통해 OUT-IN, IN-OUT M&A의 타깃산업을 확인 가능

<산업별 OUT-IN M&A 거래(금액기준)>

(단위: 백만 달러)

산업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에너지	29,109	1,539	2,717	134	1,647	-	35,146
제조업	4,342	1,682	1,892	11,338	4,980	327	24,561
원자재	1,252	14,522	1,404	288	3,337	11	20,813
금융	2,295	1,569	320	5,573	8,257	2,160	20,174
필수소비재	2,129	3,422	1,229	14	10,178	99	17,070
소비재 및 서비스	595	8,664	3,818	2,065	-	75	15,217
통신	1,394	1,385	218	7,507	32	-	10,537
미디어/엔터테인먼트	127	97	2,101	949	2,778	928	6,980
첨단기술	2,255	852	174	43	2,130	343	5,796
부동산	409	304	2,260	450	467	647	4,537
의료서비스	41	937	1,203	320	1,235	306	4,041
소매	949	374	193	1,010	48	47	2,620
정부 및 공공기관	-	-	-	31			31
합계	**44,895**	**35,346**	**17,528**	**29,720**	**35,092**	**4,942**	**167,523**

자료원: Thomson Reuters(2014년 9월 기준)

<산업별 IN-OUT M&A 거래(금액기준)>

(단위: 백만 달러)

산업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통신	-	22,509	459	3,492	4,542		31,002
에너지	3,419	7,368	1,069	1,160	8,492	2,672	24,181
필수소비재	167	7,358	1,007	10,666	903	2,336	22,438
첨단기술	278	475	11,021	2,439	119	193	14,525
제조업	747	1,446	1,553	4,381	6,148	36	14,311
금융	2,688	2,113	297	1,053	157	18	6,326
원자재	512	751	612	1,031	2,196	68	5,171
부동산	1,343	472	560	20	1,433	264	4,092
소비재 및 서비스	342	12	1,611	821	31	71	2,887
의료서비스	513	378	241	545	388	131	2,196
소매	186	732	47	24	14	266	1,269
미디어/엔터테인먼트	49	77	108	307	-	-	541
합계	**10,243**	**43,692**	**18,586**	**25,939**	**24,425**	**6,054**	**128,939**

자료원: Thomson Reuters(2014년 9월 기준)

○ 국가별 M&A 거래내역에서 OUT-IN과 IN-OUT이 뚜렷한 차이를 나타냄.

- OUT-IN 거래는 독일, 스웨덴, 벨기에 등 인접한 EU 국가가 대부분이며, 미국과 일본의 비중도 높은 편
- EU 역외 국가들은 네덜란드기업이 보유한 첨단기술, 지식재산권(IP[6]), 기초소재 등을 선점하기 위한 M&A 거래에 집중하고 있음.
- 한편 R社, A社 등 금융기관들은 조세 피난처, 이전가격 설정[7] 등 네덜란드가 갖는 특수성으로 인해 非EU 국가들의 M&A가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함.

<OUT-IN M&A 상위 10개국>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독일	14	49	33	1,413	26	218	14	8	11	36	119	13,974
미국	38	1,587	57	872	38	3,145	41	7,802	28	68	237	13,673
스웨덴	3	381	9	968	7	33	3	-			27	12,178
벨기에	7	-	8	-	9	5,566	7	2	1	-	40	5,569
일본	3	-	2	13	3	-	6	2,687	3	344	19	4,680
이탈리아	1	1,530	4	-	1	2,642	3	-	1	-	14	4,172
노르웨이	2	-	4	-	4	3,408			1	-	12	3,408
영국	22	2,033	21	151	15	183	16	269	22	21	108	2,895
러시아	2	-	5	-	2	-	1	-	2	-	16	2,794
아일랜드	2	2,294	2	20	2	-	1	-			8	2,314

자료원: Thomson Reuters

- 한편 IN-OUT은 미국, 싱가포르, 러시아, 인도 등 EU 역외국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보임. 이는 OUT-IN과 마찬가지로 역외 유입된 M&A 거래를 통해 네덜란드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 때문으로 추측됨.
- 아울러 석유·가스 확보, 아프리카·아시아 개도국 시장선점 등을 목적으로 대외 M&A 거래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6) Intellectual Property

7) 다국적 기업이 기업 내부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으로 주로 고세율 국가의 지사나 현지법인에서 저세율 국가의 지사나 현지법인으로 이윤을 이전하여 세금납부를 줄이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회계 관행

<IN-OUT M&A 상위 10개국>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미국	21	19	26	753	18	6,350	15	26,082	10	0	110	36,082
이탈리아	11	22,522	6	0	4	0	4	0	1	0	32	22,846
영국	32	665	19	10,298	25	2,147	18	1,128	7	65	120	14,357
싱가포르	1	0	2	0	4	6,410	1	0	1	0	11	6,520
러시아	20	552	16	694	7	1,737	19	1,383	1	0	78	4,367
인도	5	0	6	3	7	1,491	6	65	2	2,264	33	4,078
캐나다	9	2,336	5	432	3	277	4	217	3	40	34	3,371
체코	7	140	4	0	1	0	3	3,107	4	0	24	3,247
이집트	2	81					2	2,325			4	2,406
오스트리아	5	99	3	0	2	1,963					12	2,062

자료원: Thomson Reuters

□ 최근 추세

○ 최근에는 OUT-IN 보다 중소기업 위주로 IN-IN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음.

- M&A를 통해 부실기업은 정리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살아남게 되면서 네덜란드 기업생태계가 강화되는 것으로 평가됨.

○ 한편 네덜란드기업간(IN-IN) 거래 배경에도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기업이 자리하는 것으로 파악됨.

- 즉, 해외기업들이 네덜란드 법인 설립 후 IN-IN M&A 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됨.

2. 한·중·일 진출동향

(1) 중국

가. 對네덜란드 M&A 동향

□ 거래 규모

○ 2009년 이후 중국의 네덜란드기업 M&A는 6억 4,996만 달러(14건)를 기록(2014년 9월 기준)

□ 주요 분야

○ 주요 M&A 거래분야는 의약품, 식음료 및 자동차부품

□ 최근 특이사항

○ 2011년 BHAP의 Inalfa Roof Systems Group BV 인수(2억 7,100만 달러)와 2010년 Sinochem Group의 South America Holding BV 인수(2억 7,700만 달러) 등이 주요 거래

<네덜란드 M&A 시장진출 주요 중국기업>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업종	M&A 금액 (백만 달러)	M&A 년도
Global Star Tech & Trading Co	Industriele Diensten Heino BV	식품	-	2014년
Changchun BCHT Biotechnology	Mucosis BV	제약	4.79	2014년
ENN Energy Holdings Ltd	LNG USDope BV	에너지	-	2013년
Shandong Kaitai Group Co Ltd	AIRBLAST BV	기계	14.05	2012년
Aikosolar	Scheuten Solar-Assets	반도체	-	2011년

Ausnutria Dairy Corp Ltd	Hyproca Dairy BV	식품	9.06	2011년
Sinochem Group	South America Holding BV	금융	-	2011년
BHAP	Inalfa Roof Systems Group BV	자동차부품	271.47	2011년
Ausnutria Dairy Corp Ltd	Hyproca Holding BV	식품	14.63	2011년
NavInfo Co Ltd	Mapscape BV	소프트웨어	9.37	2011년
Sinochem Group	DSM Anti-Infectives BV	제약	277.01	2010년
Winsway Coking Coal Hldg Ltd	Peabody-Polo Resources BV	금속	35	2010년
Hara XEMC Windpower Co Ltd	Darwind Holding BV	기계	14.58	2009년
Universal Display Technology	OTB Display	반도체	-	2009년

자료원: Thomson Reuters

나. 중국기업의 네덜란드기업 M&A 사례

1) 중국기업 성공사례

[사례1] : BHAP의 Inalfa Roof Systems Group 인수

□ M&A 기본정보

취급품목	자동차부품	M&A 년도	2011년 7월
M&A 금액	2억 7,147만 달러	목적	합병
거래의사	우호적 M&A	법적형식	주식취득
결합형태	수평적 M&A	결제수단	현금
인수기업	Beijing Hainachuan Automotive Parts Co Ltd of China	설립년도	2008년
		소재국가	중국
		매출액(2013년)	N/A
		업종	자동차부품
피인수기업	Inalfa Roof Systems Group BV	설립년도	1946년
		매출액(2013년)	8억 7,595만 달러
		업종	자동차부품

□ 상세 내역

○ 기업 개요

- (인수기업) Beijing Hainachuan Automotive Parts Co Ltd of China(BHAP)는 자동차부품(전장, 브레이크, 열교환기 등) 생산 기업으로 슬로바키아, 미국, 한국, 브라질, 멕시코, 일본 등에서 해외공장을 운영 중
- (피인수기업) Inalfa Roof Systems Group는 자동차 선루프 및 카브리오 시스템을 개발, 생산하는 네덜란드 중소기업으로 BMW, Audi, GM, Fiat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에 OEM 공급 중

○ M&A 목적

- BHAP은 중국 자동차 부품산업 선도 기업으로 세계 시장 진출의 일환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R&D, 마케팅 능력 강화를 위해 Inalfa Roof Systems Group을 전략적으로 인수

○ 추진 과정

- BHAP은 Inalfa Roof System의 R&D 인력 및 경영방식 대부분을 수용하는 등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임.
- 뿐만 아니라 피인수기업의 기업문화를 적극 수용하였으며, Inalfa가 소재한 Venary市 지역개발에도 참여하는 등 인수 후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대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 시사점

○ Roof Systems Group은 자동차 선루프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BMW, Audi 등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으나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로 자동차 산업이 위축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중국 BHAP는 중국 자동차 내수시장 및 해외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선진기술 도입이 필요한 시점에서 Roof Systems Group이 적격의 기업으로 판단하여 전격 인수하였음.

- 충분한 자금력과 빠른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네덜란드기업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2) 일본

가. 對네덜란드 M&A 동향

□ 거래 규모

○ 2009년 이후 일본의 네덜란드 M&A 시장 진출 3,995억 9,700만 달러(19건) 규모(2014년 9월 기준)

○ 2013년 ORIX Corp의 M&A(25억 9,304만 달러)가 거래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대부분 10억 달러 미만의 거래가 발생하고 있음.

□ 주요 분야

○ 일본은 네덜란드 금융산업을 타깃으로 M&A를 시행하고 있음.
- 특히 자산 운용, 연기금 및 보험 등이며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지주회사 설립도 일부 시행한 것으로 보임.

○ 소규모 거래는 네덜란드 기술기업의 지재권 획득을 목적으로 지분투자 또는 인수합병이 이뤄지고 있음.

□ 최근 특이사항

○ 2013년 일본은 세계 경기가 장기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저금리 기조를 활용하여 자국에 축적된 현금유보를 해외투자로 적극 전환하는 투자가 활발하였음.

○ 다만, 자산운용사 R社 관계자에 따르면 2014년 네덜란드 금융산업에 대한 일본의 투자는 감소하고 있으며 자국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도 나타나면서 네덜란드기업 M&A에 소극적 태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네덜란드 M&A 시장진출 주요 일본기업>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업종	M&A 금액 (백만 달러)	M&A 년도
SoftBank Corp	GGF BV	금융	344.04	2014년
Nikko Travel Co Ltd	Lime Tree Cruises BV	교통	-	2014년
JRC	Alphatron Marine BV	항공·우주	-	2014년
Metawater Co Ltd	RWB Water Solutions BV	기계	2.01	2013년
Nikkiso Co Ltd	Geveke BV	기계	80.01	2013년
Mitsubishi Plastics Inc	Aquamit BV	화학	-	2013년
Toyo Ink SC Holdings Co Ltd	Arets International NV	금융	11.71	2013년
Maruha Nichiro Holdings Inc	Seafood Connection Holding BV	식품	-	2013년
ORIX Corp	Robeco Groep NV	자산관리	2,593.04	2013년
GREE Inc	eBuddy BV	IT 서비스	-	2012년
Chateraise Co Ltd	Maitre Paul BV	식품	-	2012년
Recruit Co Ltd	Advantage Resourcing Europe BV	고용	-	2012년
Nipponkoa Insurance Co Ltd	Nateus Nederland BV	보험	13.02	2011년
New Cosmos Electric Co Ltd	Bionics Instrument Europe BV	전자	-	2011년
Amada Wasino Co Ltd	De Ridder THO-AMADAActivities	기계	-	2010년
Panasonic Corp	Haagtechno BV	전자, 컴퓨터	-	2010년
NEC Corp	NEC Philips Unified Solutions	통신	-	2010년
Canon Inc	Oce NV	소프트웨어	952.14	2009년
Mitsubishi Kagaku Media Co Ltd	Freecom Technologies BV	컴퓨터 주변기기	-	2009년

자료원: Thomson Reuters

나. 일본기업의 네덜란드기업 M&A 사례

1) 일본기업 성공사례

[사례1] : Orix Corp의 Robeco Groep NV 인수

□ M&A 기본정보

취급품목	자산관리	M&A 년도	2013년
M&A 금액	25억 9,304만 달러	목적	자산운영사업 확대
거래의사	우호적 M&A	법적형식	주식취득
결합형태	복합적 M&A	결제수단	현금
인수기업	Orix Corp	설립년도	1950년
		소재국가	일본
		매출액(2013년)	60억 달러
		업종	금융
피인수기업	Robeco Groep NV	설립년도	1997년
		매출액(2013년)	14억 달러
		업종	금융

□ 상세 내역

○ 기업 개요

- (인수기업) Orix Crop는 저축은행, 보험, 부동산을 운영하는 일본의 종합 금융기업으로 일본 오사카 소재 프로야구팀도 운영 중
- (피인수기업) Robeco는 네덜란드 최대 자산운영사(2012년 자산 총액 약 1,890억 유로)로 공공기관 연기금 운용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채권, 주식, 부동산 투자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업을 운영 중

○ 추진 과정

- Orix Group은 네덜란드 자산운영사 Robeco 지분을 대거 매입함으로써 자산 운용 부문까지 사업영역을 확장

- 인수방식은 Orix가 Robeco 주식의 90.01%를 취득하고 잔여 지분을 네덜란드 Rabo Bank가 보유하는 것으로 결정
- Robeco 인수가는 25억 9,304만 달러(약 2,500억 엔)로 일본기업의 해외 자산운용회사 인수 사례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
- 아시아 기업의 M&A 과정에 대형 자문사가 관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동 거래에는 Barclays, JP Morgan, Goldman Sachs, Morgan Stanely 등이 참여했다는 점이 특징

□ 시사점

○ 다량의 사내 유보금을 해외투자로 전환하여 해외 자산운영 사업까지 진출한 사례로 세계경기 회복 국면에 따라 공격적인 투자를 했다는 평가

○ Orix는 Robeco의 기존 고객망과 노하우를 이용하여 해외 자산운용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

(3) 한국

가. 對네덜란드 M&A 동향

□ 거래 규모

○ 한국의 M&A 거래는 선진기술 확보와 차세대 반도체 산업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삼성전자의 ASML 지분인수거래가 대표적

□ 주요 분야

○ 주요 투자 산업은 의약품, 석유·가스, 반도체 등

□ 최근 특이사항

○ 네덜란드에서 한국으로의 M&A 거래는 활발한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 M&A 거래를 주도하는 네덜란드기업들의 지주회사이며 우회투자를 통한 조세피난이 의심되는 거래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네덜란드 M&A 시장진출 주요 한국기업>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업종	M&A 금액 (백만 달러)	M&A 년도
삼성전자	ASML Holding NV	전자	628.75	2012년
SK 네트웍스	Novoko BV	석유·가스	10.80	2011년
대한뉴팜	BNG Energy BV	제약	6.25	2010년
대한뉴팜	Galaz Energy BV	제약	10.99	2010년

자료원: Thomson Reuters

나. 한국기업의 네덜란드기업 M&A 사례

1) 한국기업 성공사례

[사례1] : 삼성전자의 AMSL 인수

□ M&A 기본정보

취급품목	반도체	M&A 년도	2012년
M&A 금액	6억 2,875만 달러	목적	차세대 반도체 개발
거래의사	우호적 M&A	법적형식	주식취득
결합형태	수평적	결제수단	현금
인수기업	삼성전자	설립년도	1969년
		소재국가	한국
		매출액(2013년)	2,150억 9,000만 달러
		업종	전기전자
피인수기업	AMSL	설립년도	1994년
		매출액(2013년)	72억 2,000만 달러
		업종	반도체 제조장비

□ 상세 내역

○ 삼성전자는 5억 300만 유로를 투자해 ASML 지분의 3%를 인수하고, 이와 별도로 5년 간 2억 7,600만 유로를 투자해 차세대 리소그래피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결정

○ ASML은 노광(露光) 기술[8]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반도체 노광 장비 시장에서 80% 안팎의 점유율을 가진 최대 기업

8) 반도체 재료인 웨이퍼(원판)에 극자외선(Extreme Ultraviolet)을 쬐어 미세한 전자회로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

□ 시사점

○ 삼성전자는 차세대 기술선점 및 기술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외 M&A 거래를 성사하고 있음.
- 다른 기업들도 해외 선진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M&A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네덜란드는 상용화 이전 단계의 차세대 기술 관련 지재권을 다수 보유하여 우리기업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네덜란드 국립 응용과학대학(TNO)은 자동차, 항공, 화학, 국방, IT 등 다양한 분야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우리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이전받거나 공동협력을 통해 기술개발 가능

3. 우리기업 진출방안

□ M&A 유망분야

○ 신재생에너지
- 2008년 7월 발효된 Unbundling Act[9]에 따라 네덜란드 에너지 산업분야의 대규모 M&A 거래 가능
- 특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육성의지 및 각종 보조금 정책이 네덜란드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가치를 향상하는 계기가 됨.
- APG, PGGM 등 연금관리기관 및 Rabo Private Equity 등은 벤처캐피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보유한 인큐베이터 기업 대상 펀딩을 활성화

○ 석유화학
- 네덜란드 석유화학 분야에는 Royal Dutch Shell, Akzo Nobel, DSM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존재하며 석유가스 개발, 차세대 석유화학제품 개발 및 오일허브 프로젝트 투자기회도 발굴 가능

○ 첨단기술(High-Tech)
- 네덜란드에는 반도체,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를 비롯하여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 및 지재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다대

□ 진출방안 및 유의사항

○ 네덜란드는 창조적,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사회풍조를 가진 국가로 각종 실험적인 프로젝트, 기술개발 등을 꾸준히 추진

○ 전기전자, 화학,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수준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첨단기술을 우리나라의 제조업과 결합하는 형태의 M&A는 타당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9) 에너지 시장의 경쟁촉진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안으로 전력생산 기업과 송전 기업 간 분리가 핵심 내용

○ 아울러 우리기업은 충분한 시장조사 및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을 통해 해외 기술력 확보를 위한 M&A 전략 수립 필요

○ 면밀한 시장조사를 통해 시장수요를 전망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을 획득하기 위한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요망

○ 우리기업의 M&A는 주로 지분취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향후 완전한 인수합병을 고려할 경우 기업 간 내부 통합이 M&A 성공의 핵심
- Air France의 KML 인수 건의 경우 합병 후 언어, 문화적 차이로 현지화에 어려움을 겪는 한국기업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평가됨.

※ Air France M&A 사례

- Air France는 기존 경험을 통해 인수 및 피인수 기업 간 성공적인 통합이 M&A의 성공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
- M&A 초기 단계부터 소통과 협력을 강조, 이후 직원간 결속을 강화하고 기업문화 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시행
- 이를 통해 통합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M&A의 발판을 마련함.

Ⅵ 이탈리아

1. 국경간 M&A 동향

□ 거래 현황

○ M&A 시장은 금융위기로 침체 후 회복 국면

- 이탈리아 국경간 M&A 거래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 80건으로 급감함. 이후 2010년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위기 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 거래 금액 면에서도 2010년에는 124억 유로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2013년에는 173억 유로를 나타내며 완만한 증가세를 보임.

<이탈리아 M&A 실적 추이>

(단위: 십억 유로)

구분	IN-IN		IN-OUT		OUT-IN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9년	117	13.3	42	13.5	38	7.4	197	34.2
2010년	149	7.4	47	2.4	83	10.0	279	19.8
2011년	158	6.7	62	3.3	109	18.0	329	28.0
2012년	186	16.5	63	1.8	91	7.4	340	25.7
2013년	205	13.6	70	4.1	106	13.3	381	30.9
2014년*	N/A	N/A	N/A	N/A	36	4.3	105	10.7

자료원: KPMG Corporate Finance(2014년 1분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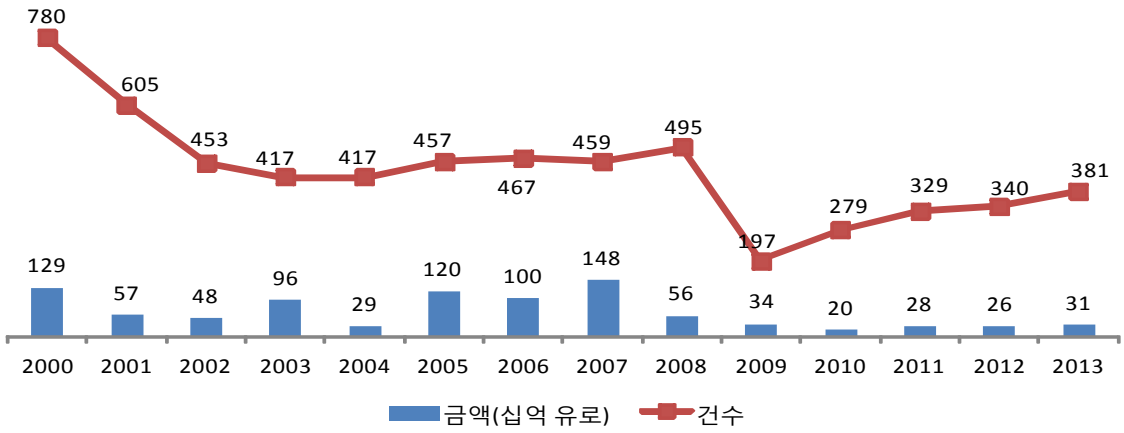
□ 최근 추세

○ 유형별로는 OUT-IN 비중이 높음.

- 2013년 국경간 M&A 거래는 176건, 173억 유로 규모로 전년대비 건수 및 금액 면에서 각각 14.3%, 88.0% 증가함.
- 건수 기준으로 OUT-IN(106건)이 전체 거래의 28%, IN-OUT(70건)은 18% 비중을 차지함.
- 금액 기준으로 OUT-IN(133억 유로)이 전체의 43%, IN-OUT(41억 유로)은 14%로 나타남.

<연도별 이탈리아 M&A 시장 동향>

(단위: 십억 유로, 건)



자료원: KPMG Corporate Finance

*주: IN-IN, IN-OUT, OUT-IN M&A 모두 포함한 수치

○ 최근 국경간 M&A 증가세가 두드러짐.

- 이탈리아 국경간 M&A 시장은 2013년 176건, 174억 유로를 기록해 IN-OUT, OUT-IN 모두 전년대비 건수와 금액이 증가함.
- 금액 면에서 전체 M&A 시장에서 국경간 거래의 비중이 2013년 56.2%로 전년(35.7%)대비 크게 높아짐.
- 특히 2013년 OUT-IN M&A는 106건, 133억 유로로 전년대비 건수는 16.4%, 거래금액은 79.4% 증가함.

○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형화 추세가 확연함.

- 2013년에는 1억 유로를 초과하는 M&A가 총 9건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상위 10대 거래 총액이 153억 유로로 대형 M&A가 금액 및 건수 면에서 모두 증가세를 보임.

<규모별 이탈리아 M&A 동향>

(단위: 건, 십억 유로)

건당 규모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억 € 이상	4	7.0	4	10.8	4	12.8	9	15.3
1,000만~1억 €	40	9.7	45	14.6	34	10.8	41	12.6
500만~1,000만 €	20	1.3	19	1.3	14	1.0	20	1.3
500만 € 미만	215	1.8	261	1.3	288	1.1	311	1.7
총계	**279**	**19.8**	**329**	**28.0**	**340**	**25.7**	**381**	**30.9**

자료원: KPMG Corporate Finance

○ 국가별 M&A 투자 동향

- 2013년에는 주로 구미권 국가와 더불어 중국, 일본, 러시아, 브라질도 이탈리아 M&A 시장에 투자함.
- 국가별로는 미국이 18건(37억 7,900만 유로), 프랑스가 17건(24억 8,100만 유로), 영국이 14건(11억 3,000만 유로), 스위스가 9건(1억 2,300만 유로), 독일 9건(8,000만 유로) 순
- 중국은 6건, 일본은 2건을 투자했으며, 한국은 2012년에 3건을 기록했으나 2013년 투자 건은 없음.

<2013년 상위 10대 OUT-IN M&A>

(단위: 백만 유로, %)

인수기업	국적	피인수기업	업종	M&A 금액	인수지분
CNPC[10]	중국	ENI East Africa SpA	에너지	3,237	28.6
LVMH	프랑스	Loro Piana SpA	명품 패션	2,000	80.0
General Electric Corporation	미국	Avio SpA	우주항공, 국방	1,900	100
CVC Capital Partners	영국	Cerved Group SpA	비즈니스 서비스	1,130	100
Primav Construcoes e Comercio SA, BTG Pactual	브라질	EcoRodovias Infraestrutura e Logistica SA (Impregilo Group)	인프라	925	29.2
Mohawk Industries Inc	미국	Marazzi Group Srl	복합산업	852	100
BlackRock Inc	미국	Unicredit SpA	은행	458	1.9
OAO Neftyanaya Kompaniya LUKOL	러시아	ISAB Srl	정유	426	20.0
Kering SA	프랑스	Pomellato SpA	섬유/의류	350	81.0
Telefonica SA	스페인	Telco SpA	정보기술	324	19.8

자료원: KPMG Corporate Finance

○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에 대한 M&A 지속

- 2013년에도 해외기업들은 다양한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를 인수합병함. 주요 사례로는 미국 Blackstone의 Versace 인수(20%), 중국 S.Marisfrolg의 Krizia 인수, 프랑스 LVMH의 Loro Piana 인수(80%) 등

<해외기업이 인수합병한 이탈리아 유명 기업>

자료원: University of Bocconi, CReSV(보꼬니 대학 지속가능성 연구센터)

○ 국부펀드와 사모펀드가 주요 투자자

- 중국석유공사(CNPC)의 이탈리아 ENI 자회사 부분 인수(32억 유로), CVC(Capital Partners)의 Cerved Group 인수(11억 유로) 등 국부펀드와 국제 사모펀드가 2013년에도 이탈리아 M&A 부문을 주도함.

○ 부채 감축을 위한 민영화 본격 착수

- 2014년 이탈리아 정부는 부채 감축을 위해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가속화하여 ENI(석유화학)를 비롯해 8개 기업 부분 매각을 통해 약 120억 유로를 확보한다는 계획임.

- 부분 매각 대상 공기업은 Fincantieri(조선), Enav(항공교통관리), Sace(수출보험), STM(반도체), Grandi Stazioni(철도), Snam(가스)-Terna(전력망) 등

10)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

2. 한·중·일 진출동향

(1) 중국

가. 對이탈리아 M&A 동향

□ 주요 산업 및 거래 규모

○ 다양한 산업군에 걸친 M&A
- 중국은 요트부터 오토바이까지, 명품에서 공공서비스까지 다양한 이탈리아 기업을 M&A 하고 있음.
- M&A를 통해 원천기술을 단기간에 획득하고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를 확보함.
- 제조업 부문은 Shandong Heavy Industrie가 2011년 세계 2위 모터 요트 제조사 Ferretti(4억 7,802만 달러), Changsha Zoomlion Heavy Industries는 2008년 건설 중장비 업체 CIFA, 중국 가전업체 Haier는 2009년 ELBA, 2011년 Qinjiang Group은 오토바이 제조사 Benelli를 인수
- 2013년 Shenzhen Marisfrolg Fashion은 디자이너 브랜드 Krizia에 투자함. 또한 중국석유공사(CNPC)의 ENI East Africa 지분인수(28.6%)는 32억 3,700만 유로 규모로 2013년 이탈리아 최대 M&A건

□ 최근 특이사항

○ 통신, 전력 등 공공 서비스, 자동차 및 발전기자재, 가전 등 매각 중인 국영기업과 이탈리아 전략산업에 집중 투자
- 중국인민은행(PBOC)은 2014년 초 ENI(석유), ENEL(전력)에 각각 14억 4,000만 유로, 8억 1,700만 유로를 투자해 2.1% 지분을 확보함. 2014년 7월 FCA(자동차) 2.0%(1억 7,700만 유로), Telecom Italia(통신) 2.1%(3억 2,900만 유로), Prysmian(특수케이블) 2.0%(6,600만 유로) 등을 지분 매입함.
- 2014년 China State Grid는 이탈리아 국영 Cdp Reti[11]의 지분 35%(약 21억 유로) 매입 관련 지분 소유주인 국영은행(CDP[12])의 승인을 획득함.

11) 이탈리아 최대 천연가스 회사인 Snam과 전력 배전회사 Terna 지분을 각각 30%씩 보유한 특수목적회사

- 2014년 6월 렌치 총리의 방중 기간에 상하이전기(上海電氣集團)가 발전기자재 제조업체 Ansaldo Energia에 지분 40%(4억 유로) 인수에 합의함.
- 이탈리아 가전업체 Indesit 지분인수에도 중국의 Haier이 Bosch(독일), Whirlpool(미국), Arcelik(터키) 등과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이탈리아 M&A 시장진출 주요 중국기업>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업종	M&A 금액	M&A 년도
Guanazhou Wanbao Group Co Ltd.	ACC Compressors SpA	기계	N/A	2014년
Target Lighting Ltd	Fama Srl	가구	N/A	2014년
Shenzhen Marisfrolg Fashion Co.	Krizia SpA-Fashion Division	의류·직물	N/A	2013년
CNPC(중국석유공사)	ENI East Africa SpA	에너지	32억 3,700만 유로	2013년
Guangdong Dongfang Precision	Fosber SpA	제지	5,500만 달러	2013년
Shangdong Heavy Ind Grp Co. Ltd	Ferretti SpA	요트	4억 7,802만 달러	2011년
GSF Capital Pte Ltd	Italgest Energia SpA	에너지	N/A	2010년
Anshan Iron & Steel Group Corp	Vigano Srl	금속	N/A	2010년
CECEP	Italsolar Srl	태양광	490만 달러	2010년
LDK Solar Co Ltd	Solar Green Technology SpA	반도체	N/A	2009년
Shengshi Yacht Co Ltd(Wantong Group)	Dalla Pieta Yachts Srl	조선	1,464만 달러	2009년
Zoomlion Heavy Industry Science and Technology Co., Ltd.	CIFA SpA (Compagnia Italiana Forme Acciaio SpA)	특수 건설장비	3억 7,550만 유로	2008년

자료원: Thomson Reuters, KPMG Corporate Finance

12) Cassa Depositi e Prestiti

나. 중국기업의 이탈리아기업 M&A 사례

1) 중국기업 성공사례

[사례1] : Zoomlion의 CIFA 인수

□ M&A 기본정보

취급품목	콘크리트 관련 기계	M&A 년도	2008년, 2012~2013년
M&A 금액	3억 7,550만 유로(지분 59.32%), 2억 3,580만 달러(잔여 40.32%)	목적	사업분야 확장 및 신시장 진출
거래의사	우호적 M&A	법적형식	자산취득
결합형태	수평적 M&A	결제수단	현금
인수기업	Zoomlion Heavy Industry Science and Technology Co., Ltd.	설립년도	1992년
		소재국가	중국
		매출액(2013년)	13억 유로
		업종	건설용 기계
피인수기업	CIFA SpA (Compagnia Italiana Forme Acciaio SpA)	설립년도	1928년
		매출액(2008년)	3억 6,000만 유로
		업종	콘크리트 관련 기계

□ 상세 내역

○ 중국 2대 건설중장비 기업인 Zoomlion은 2008년 이탈리아 콘크리트 기계 제조 리더기업인 CIFA를 약 3억 7,550만 유로에 인수

- 2012년 말에 2억 3,580만 달러로 잔여 지분 40.68%을 Goldman Sachs, Hony Capital, Madarin Capital Partners 등 4개 기관으로부터 인수하는데 합의하여, 2013년 지분 100%를 인수 완료
- Zoomlion은 동 M&A를 통해 총 16억 유로의 매출액을 창출하는 세계적인 콘크리트 건설기계 업체로 부상

□ 시사점

○ Zoomlion과 CIFA의 합병은 콘크리트 건설기계 부문에서 양사가 보유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 CIFA의 경우 콘크리트 건설기계 분야 유럽시장의 선도자이며 특히 중동과 러시아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자랑
- Zoomlion의 경우 관련 분야 중국 최대 기업이며 중국 정부의 중산층 주택 보급, 시골지역 관개 배수시설, 고속철도 및 신규 발전소 건설 등 잇따른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에 따른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

○ Zoomlion은 동 인수합병을 통해 CIFA의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관련 산업부문에서 선도기업으로 자리잡음.

- 또한, 무형적 자산으로 동 인수 합병 경험을 쌓아 M&A 이후 발생 가능한 문제 해결 및 관리 노하우도 습득함.
- 인수합병 이후에도 Zoomlion과 CIFA 브랜드를 유지하면서 통합을 진행

○ 중국기업의 전형적인 對이탈리아 M&A 전략인 뒷문 확장식 전략(Backdoor Expansion) 사례로 들 수 있음.

- 뒷문 확장식 전략(Backdoor Expansion)이란 세계적인 인지도를 가졌으나 일시적인 경영난에 빠진 외국기업을 사들임으로써 자사의 경쟁력을 일거에 제고하는 전략임.
- 특화된 기술과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통째로 사들임으로써 기술, 디자인, 브랜드를 흡수하는 전략으로 큰 성과를 거둠.

(2) 일본

가. 對이탈리아 M&A 동향

□ 주요 분야 및 거래 규모

○ Nomura 증권에 따르면, 이탈리아는 일본의 해외 주요 M&A 타깃 시장으로 보기는 어려움.

- 1990~2012년 일본의 대외 M&A 중 이탈리아의 비중은 4%로 독일 내 M&A 비중과 비슷하나, 네덜란드(20%), 스위스(21%), 영국(27%) 등에 비해서는 관심도가 다소 낮은 편
- KPMG에 따르면, 2012년 일본의 이탈리아 내 인수 건은 총 5건(6억 400만 유로)을 나타냈으나 2013년에는 2건에 그침.

○ 다만, 2011년에는 이례적으로 對이탈리아 M&A 규모가 12억 3,000만 유로로 크게 증가함.

- 이는 Lixil의 이탈리아 건설회사 Permasteelisa 인수 등 대형 거래에 기인함. 이로 인해 1990년 이래 연간 거래총액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11년부터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M&A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음.
- 일본은 이탈리아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비롯, 자동차부품, IT, 에어컨, 반도체, 화학, 의료, 건설, 발전기 등의 산업 부문에서 M&A를 추진하고 있음.

<이탈리아 M&A 시장진출 주요 일본기업>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업종	M&A 금액(달러)	M&A 년도
Eurus Energy Holdings Corp	IVPC Power 4 Srl, IVPC Power 9	신재생에너지	-	2014년
Mitsubishi Electric Corp	Klimat-Fer SpA	기계	1,641만	2013년
Marubeni-Itochu Steel Inc	CLN SpA	금속	-	2013년
Nabtesco Corp	OCLAP Srl	자동차부품	-	2013년
Investor Group	Solar Holding	신재생에너지	5,255만	2013년
Tokai Rubber Industries Ltd	Dytech Dynamic Fluid	자동차부품	1억 7,532만	2012년
Chiyoda Corporation	Archimede Solar Energy SpA	반도체	-	2012년
Mizuno Corp	Alta SpA	소비재	-	2012년
CBC Co Ltd	Intrachem Bio Italia SpA	화학	-	2012년
Nidec Corp	Ansaldo Sistemi Industriali	전자	-	2012년
NSG	Flovetro SpA	건설자재	-	2012년
Otsuka Medical Devices Co Ltd	Era Endoscopy Srl	의료/장비	-	2011년
Tosho Inc	Health Robotics Srl	의료/장비	-	2011년
Lixil Corp	Permasteelisa SpA	건설	7억 7,140만	2011년
Yazaki Corp	Cablelettra Spa	반도체	-	2011년
NTT Data Corp	Value Team SpA	IT	3억 4,020만	2011년
Toshiba Corp	Ansaldo T&D	전력	-	2011년
Sumitomo Corp	Energy Power Srl	신재생에너지	-	2011년
Sumitomo Corp	Energia Rinnovabile Srl	신재생에너지	5,588만	2011년
Sumitomo Chemical Co Ltd	Isagro Italia Srl	화학	-	2011년
Mitsubishi Heavy Industries	ATLA Srl	금속	-	2010년
Denso Corp	CTR Srl	IT	-	2010년
Nidec Corp	ACC-household motor business	기타	-	2010년
NTMC	Sole Motors Corp SRL	기타	-	2010년
Sony Music Entertainment	Dada SpA	소프트웨어	-	2010년

자료원: Thomson Reuters

나. 일본기업의 이탈리아기업 M&A 사례

1) 일본기업 성공사례

[사례1] : Nidec의 Ansaldo sistemi Industriali 인수

□ M&A 기본정보

취급품목	산업용 모터, 발전기	M&A 년도	2012년
M&A 금액	3억 8,000만 유로	목적	사업분야 확장 및 신시장 진출
거래의사	우호적 M&A	법적형식	자산취득
결합형태	수평적 M&A	결제수단	현금
인수기업	Nidec Corp	설립년도	1973년
		소재국가	일본
		매출액(2013년)	1,320억 엔
		업종	산업용 모터
피인수기업	Ansaldo Sistemi Indusriali	설립년도	1853년
		매출액(2013년)	2억 8,307만 유로
		업종	산업용 모터, 발전기

□ 상세 내역

○ Nidec은 자사 기업전략인 'Vision 2015' 계획 하에 해외기업 인수를 통해 산업용 모터 생산으로 사업 확장 및 신시장 진출을 계획
- 2012년 Ansaldo Sistemi Industriali의 자산 100%를 인수함.

○ 인수 후 Ansaldo Sistemi Industriali의 기존 사업장은 유지하면서 조직구조 재편성 및 제품 생산과 경영에 관한 결정 권한은 Nidec에 귀속됨.

□ 시사점

○ 세계적인 인지도와 거래처를 보유한 Ansaldo Sistemi Industriali를 인수함으로써 Nidec은 소형부터 대용량 산업용 모터까지 다양한 상품군 생산이 가능해졌으며 유럽, 인도, 러시아, 중동까지 신시장 진출이 용이해짐.

(3) 한국

가. 對이탈리아 M&A 동향

□ 주요 분야 및 최근 특이사항

○ 주로 구두, 피혁, 의류 등 패션 부문에서 M&A 시행
- 이는 고급 브랜드 포트폴리오 확보와 함께 해외시장 점유율이 높은 이탈리아 기업 인수를 통해 중국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함.

○ 최근 제약, 금속, 자동차부품 등으로 분야가 확대되고 있음.
- 이는 현지 M&A 매물이 다양한 산업군에서 지속 발생하고 있어 고부가가치 기술, 기존 유통망, 인증제도 및 벤더등록 등을 활용해 유럽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음.

<이탈리아 M&A 시장진출 주요 한국기업>

인수기업	피인수기업	업종	M&A 목적	M&A 년도
FILA 코리아	FILA	의류, 패션	브랜드 확보 및 기업 구조조정	2005년
현대자동차	Gruppo Koelliker	자동차판매	유통거점 확보 및 마케팅 플랫폼 확보	2008년
이랜드	Lario 1898	여성구두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고급브랜드 포트폴리오	2010년
이랜드	Belfe	스포츠의류	신흥시장진출을 위한 브랜드 포트폴리오	2010년
제일모직	Colombo via della spiga	피혁	명품 사업분야 확대	2010년
이랜드	Mandarina Duck	가방, 잡화	글로벌 유통망 확보 및 유럽시장 진출 발판, 중가 잡화 포트폴리오	2011년
LG패션	Allegri	의류, 패션	수입브랜드 확보 및 중국시장 진출	2011년
이랜드	Coccinelle	가방, 잡화	고급 잡화브랜드 포트폴리오	2012년

신원	Romeo Santa Maria	피혁	명품산업 진출 및 신흥시장 진출	2012년
씨젠	Arrow Diagnostics Srl	분자진단시약	이탈리아 내수시장 진출 및 유통거점 확보	2012년
포스코	Ted Metals	스테인리스코일	유럽 스테인리스 시장 사업 강화	2013년
세아철강	Inox Tech	특수강관	고부가가치 기술 확보 및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2014년
DTR	C.F. Gomma	자동차부품	이탈리아 및 유럽 시장 진출 확대	2014년

자료원: Thomson Reuters

나. 한국기업의 이탈리아기업 M&A 사례

1) 한국기업 성공사례

[사례1] : 세아제강의 Inox Tech 인수

□ M&A 기본정보

취급품목	특수 강관	M&A 년도	2014년
M&A 금액	약 1억 유로	목적	선진기술 획득 및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거래의사	우호적 M&A	법적형식	자산취득
결합형태	수평적 M&A	결제수단	N/A
인수기업	세아제강	설립년도	1960년
		소재국가	한국
		매출액(2013년)	1조 7,200억 원
		업종	금속
피인수기업	Inox Tech	설립년도	1989년
		매출액(2013년)	1억 유로
		업종	금속

□ 상세 내역

○ 세아제강은 특수강관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이탈리아 Inox Tech 지분을 100% 인수

- Inox Tech은 천연액화가스 산업에 소요되는 스테인레스 대구경강관 제조 분야의 세계 선두기업이며 이탈리아와 중국에 생산시설을 보유
- 동사는 적자 문제가 없는 탄탄한 중견기업이나, 모기업의 현금 유동성 수요에 따라 M&A 매물로 나오게 됨.
- 세일가스 개발 등 세계적인 특수강관 수요 증가에 따라 동 M&A를 시행한 세아제강은 이를 통해 소수의 글로벌 기업이 독점한 클래드(Clad) 강관[13] 시장 진입도 추진 중

13) 고부가가치 특수강관

□ 시사점

○ 스페인, 프랑스, 러시아 등 경쟁업체와의 인수 경쟁이 치열했으나, Inox Tech은 세아철강의 제안이 마케팅 관점에서 우수했다고 전함.

- 동 인수를 통해 선진 기술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Inox Tech의 기존 글로벌 수요처 벤더를 활용하게 되면서 글로벌 시장 진입이 보다 용이해짐.
- 또한 Inox Tech의 이탈리아, 중국 소재 공장도 인수함으로써 글로벌 생산 거점도 확보하게 됨.

○ 인수과정에서 본사 최고 경영진이 현지에서 신속하게 인수 과정을 진두지휘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을 단축하고 인수 절차에 동력을 부여함.

- 인수 후 대량 정리해고 없이 기존 현지 경영진을 유지하면서 기업 문화를 크게 바꾸지 않으려는 현지화 노력으로 초기 인수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됨.

[사례2] : 씨젠의 Arrow Diagnostics Srl 인수

□ M&A 기본정보

취급품목	분자진단시약	**M&A 년도**	2012년
M&A 금액	700만 유로	**목적**	이탈리아 시장 진출, 유통거점 확보
거래의사	우호적 M&A	**법적형식**	자산취득
결합형태	수평적 M&A	**결제수단**	N/A
인수기업	씨젠	**설립년도**	2000년
		소재국가	한국
		매출액(2013년)	517억 원
		업종	분자진단시약/장비 제조
피인수기업	Arrow Diagnostics Srl	**설립년도**	N/A
		매출액(2013년)	700만 유로
		업종	분자진단시약

□ 상세 내역

○ M&A 목적

- 이탈리아 내 판매·유통망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해 현지 내수시장 진출 및 유럽 지역 유통망 거점으로 활용

○ 추진 과정

- KOTRA 밀라노무역관을 통해 현지 분자진단 관련 시장정보 및 투자환경 조사
- 현지 Deal Partner list 소개로 매물 발굴 후, 2012년 12월 1단계 인수과정을 통해 지분 30% 인수, 2차 40% 추가 지분 인수를 통해 경영권을 취득

○ 결과 평가

- 최종 인수 후 10여 곳의 유통망 확보로 연 500만 유로 이상 매출 증가 예상
- 씨젠 수출의 6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유럽지역 거점 확보로 이탈리아 뿐 아니라 유럽 전역으로의 수출 증대 및 다각화 기대

○ 시사점

-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이탈리아 의료장비 업체를 인수하여 주력시장인 유럽 내 영업망 확보

3. 우리기업 진출방안

□ M&A 유망분야

○ 패션산업
- 경기침체 장기화와 자본력 부족으로 다양한 패션관련 기업이 M&A 매물로 등장하고 있음.
- 이탈리아 패션 브랜드 M&A 주요 목적은 기업 인지도 제고, 해외 유통망 확보를 통한 세계시장 진출 확대, 이탈리아 장인 기술 획득, 다양한 브랜드 포트폴리오 구축, 세계 고급 브랜드 대상 섬유 수출 등
- 이탈리아 패션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며 EU 전체 패션 매출의 31%, 관련 기업수 기준으로 27.6%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함.

○ 제약산업
- 의약품은 이탈리아 5대 수출 품목으로 꼽힘. 이탈리아는 제품별로 특화된 중소 제조기업 비중이 높고 우수한 인력과 R&D를 기반으로 글로벌 제약기업 생산기지도 분포하며 원료의약품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 보유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소형 제약기업의 지분 투자 매물화 증가와 주요 제약회사의 생산시설도 M&A 매물로 나타나고 있음. 해외업체와의 협력에 대한 우호적 반응도 증가함.
- 이탈리아기업 M&A를 통해 취득하기 어려운 유럽 제약 인증을 우회 돌파하고 현지 유통망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활용 가능함.

□ 진출방안 및 유의사항

○ 이탈리아 M&A 매력도 및 장애요소를 적절히 활용
- Roedl & Partner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최근 독일기업은 이탈리아기업 M&A를 선호하고 있음. 이는 이탈리아가 고품질 제품 및 우수 인력 확보, 자동차, 기계, 의약, 식품, 전자산업 분야가 발달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 외국은행연합(AIBE)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투자 매력도는 우수한 인적자원, 견고한 금융 시스템인 반면, 장애요소로는 복잡한 관료 행정주의, 경직된 노동시장, 불확실한 법규 등이 꼽힘.

○ M&A 관련정보 획득 및 추진 경로

- 일반적으로 현지 M&A 컨설팅업체 혹은 부티크를 통해 매물기업을 발굴함. 세아제강 사례처럼 동종업계나 거래처를 통해 M&A 매물정보를 입수하거나 인수의사 타진이 이루어지기도 함.
- 협상 및 인수 후 통합과정(PMI)을 위해 현지 로펌, 컨설팅업체와 초기 단계부터 협업이 필요함. 현지 M&A 제도, 부동산 등 자산매입, 세법, 노무관리 관련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하기 때문
- 현지 로펌 및 부띠끄와 네트워크를 확보한 KOTRA 밀라노무역관을 통해서도 M&A 매물 발굴 및 현지 실사를 지원받을 수 있음.

○ 연기금과 공동 사모펀드를 조성하여 자금 확보

- 중국석유공사(CNPC), CVC Capital Partners 등 국부펀드와 사모펀드를 통한 투자 위주의 상황을 반영하여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공동으로 사모펀드를 조성하여 M&A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 가능

○ 현지 기업문화 및 노무 관련 유의사항

- 인수 후 통합작업(PMI)이 M&A 성공의 관건이므로 오너 중심의 이탈리아 기업 문화와 강성노조에 대한 이해 및 특성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경영 방식 합리화를 통해 현지 장인 등 핵심인력 유출을 방지해야 함.
- 또한, 노무 관리 및 직원 해고의 경우 이탈리아의 복잡한 노무관련 법규 및 절차를 감안하여 노무사 혹은 관련 변호사를 접촉하는 것이 바람직함.

작성자

◈ 파리무역관 김영호 차장
◈ 암스테르담무역관 심자용 과장
◈ 밀라노무역관 이승희 차장
◈ 선진시장팀 이연주 과장
◈ 선진시장팀 이동훈 대리

Global Market Report 15-002

경쟁국 對유럽 M&A 현황 및 시사점
– 2편 –

발 행 인 ▌ 김 재 홍
편 집 인 ▌ 윤 원 석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5년 1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우 137-749)
전 화 ▌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www.globalwindow.org

Copyright ⓒ 2015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